

김원이 vs 조계원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‘10년 만의 경선’

합의 추대 관례 깨져...동·서부 대결 구도
金 “공정·투명 공천...노련한 위원장 필요”
趙 “컷오프 없는 地選” 당원권 강화 공약



김원이



조계원

이번 도당
위원장 선거
가 2015년 이
후 10년 만에
경선으로 치
러지게 된
배경에는 복
잡한 정치적
이해관계가 얽
혀 있다는 분석
이다.
특히 이번에
선출되는 도당
위원장은 내년
지방 선거에서
후보 공천·경선
관리·전략 수립
등을 총괄하게
된다는 점에서
그 어느 때보다
큰 영향력을
행사할 수 있을
전망이다. 더욱
이 이번 경선전
은 전남·동·서
부권 간의 해묵
은 지역 구도까
지 맞물리면서
그 어느 때보다
치열한 표 대결
을 예고하고 있
다.

이번 대결의 핵심은 ‘경륜’과 ‘명심(明心)’의
정면 승부다.
김원이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의 관록과 안
정감을 내세우고 있다. 그는 그동안 다선 의원
순으로 도당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‘선수(選數)
우선론’과 전남 동부와 서부가 번갈아 가면서 도
당을 맡는 ‘지역 안배론’을 내세우며 자신이 맡
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. 그는 또한 재선의 경
력과 지역 내 네트워크 보유, 중앙당과의 연결고
리 등 2023년 지방선거를 잡음 없이 관리할 ‘검증된
일꾼’임을 부각하고 있다.
이에 맞서는 초선의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
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대표적
인 ‘진명계’ 인사로 분류된다. 조 의원은 ‘당원 중

심 정당’과 ‘개혁’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다.
조 의원 측은 이번 전남도당 위원장은 동부권(여
수) 출신인 주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만큼, 같은 동
부권에서 승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.
두 사람은 똑같이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출신이
다. 1968년생인 김 의원은 성대 총학생회 정책국장,
1969년생인 조 의원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. 선
수는 김 의원이 높지만, 나이는 조 의원이 더 많다.
이번 경선의 가장 큰 변수는 ‘관리당원’의 표
심이다. 경선은 관리당원 투표 90%, 전국대의원
투표 10% 비율로 치러진다.
현재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전
남 민주당의 관리당원 비중은 동부권이 55%, 서
부권이 45% 정도로 동부권이 앞서는 것으로 알

려지고 있다. 이는 조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
고 경선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.
단순 수치로는 동부권이 우세하기 때문에 동
서부 관리당원·대의원들의 투표 참여율에 따라
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.
김 의원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로 “공정하
고 투명한 공천을 해야 한다”며 “12월3일 내란의
밤, 계엄군에 맞서 국회 전열을 진두지휘했던 노
련한 도당 위원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반면, 조 의원은 ▲당원이 주인인 전남도당 ▲
컷오프 없는 지방선거 ▲당원협의회 및 도당 정책
기능 강화 ▲지방의원 및 당원들의 도당 위원회
참여 통로 대폭 확대 등 당원권을 실질적으로 강
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. /김진수 기자



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 참석, 발언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안도걸 “AI 전략물품 비축 확대 필요” 지적

“공동비축 활성화, 과감한 인센티브 줘야”
국가데이터특위 격상·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



안도걸

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
도걸 의원(광주 동남구)은 21일 열린 조달청·데
이터청 국정감사에서 “AI 3대 강국 도약을 위
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
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”
며 “현행 비축 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
감당할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
안 의원은 이날 “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
인프라 구축,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고속도
로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구리·알루미늄 수요를
수반한다”며 “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
과,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만5천에서 약 7만4
천, 알루미늄은 1만에서 약 28만으로 추가

비축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이어 그는 “AI 인프라 구
축에 필요한 구리·알루미늄
비축 확대와 지속 기지 확충
에는 총 6천600억원의 예산
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”
며 “이는 2023년 조달청 비축 예산(800억원)의
83배에 달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
다”고 지적했다.
안 의원은 “추가 비축 물량을 수용하려면
약 2천500억~5천억원 규모의 신축 예산이 필
요해 조달청이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
을 마련해야 한다”며 “정부 재정만으로는 대
규모 비축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협력을
통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민·관 공동비축제
도 활성화가 현실적 대안이지만 활성화되고
있지 않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안 의원은 데이터처장에게 “데이터처는
더 이상 단순한 통계기관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
전략을 총괄하는 기관”이라며 ▲데이터 거버넌
스 총괄 ▲데이터·연계 표준화·메타데이터 구
축 ▲공공·민간데이터 활용 확대·개방 ▲AI 및
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마련 ▲증거 기반 정책
·통계로의 전환 등 5개 과업을 제시했다.
안 의원은 또 “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보
신부가 각각 전자정부·정보산업을 담당하고 있
는 만큼 데이터 정책의 조정·통합 기능을 명확
히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”며 “국
가통계위원회를 국가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해
국무총리가 국가 데이터전략 수립과 관계 부처
역할 조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데
이터 생산·활용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할 ‘데이
터기본법’ 제정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/김진수 기자

정진욱 “제임 10명 중 8명 ‘30인 미만 사업장’”



정가 프리즘

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
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(광주 동남구)은 21일
“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
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
다”며 “이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
열 정권 3년과 일치하는 시기”라고 밝혔다.
실제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
최근 3년간 ‘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’을
분석한 결과,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1조3천4
72억원에서 2023년 1조7천845억원, 2024년 2조
448억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
1.7% 증가했다.
“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”에 대한 임금체불
인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1.1%, 2023
년 83.6%, 2024년 80.5%로 3년 동안 10명 중 8명의



정진욱

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
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.
정 의원은 “윤 정권의 1호
국정과제였던 ‘소상공인의
운전환 회복’은 허언으로 밝
혀졌고 실상은 ‘소상공인 붕
괴’로 드러났다”며 “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
고 피해의 70~80%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
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 정권은 소기업 맞
춤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
관했다”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그는 “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
동행정의 범위를 넘어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
는 일인 만큼 중소기업벤처부는 고용노동부
와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
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”고 강조
했다. /김진수 기자

‘범용인공지능 시대’ 전남 기업 대응 모색

道, 여수서 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’

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1일
여수 소노감에서 기업 CEO, 기관·단체장 등 20
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2025년 변화를 선도하
는 경제마당’을 개최했다.
경제마당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, HD현대
삼호, GS칼텍스, 대한조선(주), LG화학, 한화
솔루션, 상공회의소, (사)전남뿌리기업협회,
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7개 기업·기관단체
에서 참석해 범용인공지능(AI) 시대를 맞
아 전남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대응 방향

을 모색했다.
특히 국내 AI 분야 대표적 전문가인 한상기 테
크프론티어 대표가 ‘AI전쟁에서 AGI의 시대: 전
남의 기회와 도전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.
김영록 전남지사는 “AI는 기술을 넘어 국가
존망을 가르는 무기가 되는 시대”라며 “최근 이
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, 최태원
SK그룹 회장과 회동을 하고 전남에 글로벌 AI
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전남은 AI
대전환의 중심축이 돼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
이자 글로벌 AI 수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
다”고 밝혔다. /양시원 기자

민간자격증 관리기관
(한국직업능력개발원)

파크골프 모든 것!

실내연습장 완비

지도자 자격증 취득

- 모집기간 : 수시모집(1:1교육)
- 교육접수 / 파크골프지도자 1,2급
 - ▶ 교재 배송 → 1차 이론 자가학습 → 1차 시험 → 2차 실기 1:1교육(매주 2회 이상) 실내파크골프연습장
- 접수방법
농협 351-1286-9685-63(국제파크골프연합회)
- 교육비 및 응시료
교재비 + 골프장 실습비 + 강사료
2급 합격시까지 28만원
- 접수 : H.P. 010-9163-7897 Tel. 062-369-0070

파크골프교육 (초보,중급,고급)

- 실내실습장(파크골프 스크린장) 1:1 책임지도(매주 2회 이상)
-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- 매주 토요일 09:00-11:30
-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



파크골프지도자 1·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

교육과정			
2 급 지도자 과정	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	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	1:1지도 사전예약
1 급 지도자 과정	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	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	1:1지도 사전예약
초급완성반과정	12만원	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	1:1지도/3회 사전예약
초급원포인트과정	6만원	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	1:1지도/2회 사전예약

※ 파크골프지도자 1·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
※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/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
교육시간 평일(토)오전 09시~ 오후 19시까지(일)/휴무
접수문의 T. 062-369-0070 M. 010-9163-7897
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-01-794141

안내문의 : 010-9163-7897 / Tel. 062-369-0070
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
(화정새마을금고 4층), 농성역 4번 출구 방향